

제보자 : 고임출(여·82세)

조사일시 : 1993년 7월 31일

조사장소 : 제주시 회천동 제보자의 집

하늘광 크댄허영 이추룩¹⁾ 산이 가당 그것이 우뚝 사시민²⁾ 사람이 바락³⁾ 겁나그네. 사람부터 먼저 겁남직 허댄 허믄 사람이 자기네 집에 돌아와도 죽든, 무신거 어떻 핸댄 해났쪄. 경허는디. 미리 알아그네 ‘요것 귀신대를 이용허였구나’해그네 돌을 봉가그네⁴⁾ 돌을 영 탁 마청⁵⁾ 마주 들 엉 막 ㅋ를⁶⁾ 냉 뭐 해가민. 그거 어서져부러났젘⁷⁾ 혔다.(조사자 : 귀신대는 어떻 생견마씸?) 귀신대는 사람도 안닮고 그냥 크게 질게 전봇대 지레같이 그냥 질 한가운데 팍 나타나는데, 밤 길 가던 그 사람이 손해 보잔허믄 막 무서워그네 겁에 박박 털멍 돌아오민 그 사람이 편안치 않아 그네 아파허영, 옛날에는 심방⁸⁾ 빌어 푸다시⁹⁾도 허고 경 지랄허여도 죽는 수도 있고, 경행 넘어 가는 수도 있고 허는디. 돌 ㅋ를 내 나민¹⁰⁾ 그게 제일 예방되었젘 혔다. 귀신대가 나타났을 때 정신을 잃지 말고 그 돌이라도 봉강 딱딱 두들영 돌 ㅋ를 내우면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, 그 귀신을 경허민 예방을 허여지고 경 안행 막 무서워허기만 해긴에 사람이 귀신에 몰려들민 손해를 봐났져. 경 헌댄 말은 들었져.

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, 『백록어문 제10회』, 1994, p.263.

1) 이처럼.

2) 섯으면.

3) 한 번에 많이 힘차게 넣거나 얻어들이는 꼴.

4) 주워서.

5) 맞추어.

6) 가루를.

7) 없어져 버리다. 사라져 버리다.

8) 무당.

9) 푸닥거리.

10) 돌가루 냄새가 나면.